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내용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제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제24장 '성경의 내용', 245–26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출발합니다. 진짜 질문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계시를 짧게 돌아본 뒤, 성경은 진노에서 피할 길,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의 역사'라는 넓은 틀 안에서 준다고 봅니다. 이어서 메러디스 클라인의 분석을 가져옵니다. 클라인은 고대 왕의 조약 양식이 다섯 부분(왕의 이름·지난 은혜·법·복과 저주·시행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틀이 성경 전체에 스며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레임은 이 다섯 요소가 성경 어디에나 있고(편만성), 서로 부딪치지 않고 맞물리며(상호보완성), 각 요소가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창이라는 점(관점적 관계)을 근거로 성경의 통일성을 논증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 신학이 성경을 갈라 한쪽만 고르는 열 가지 대립 구도(인격 대 명제, 은혜 대 율법, 사랑 대 율법 등)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아이에게도 닿고 학자에게도 깊다는 것입니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 (서론)

앞 장들에서 프레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생사가 걸린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13장에서 다룬 일반계시를 되짚습니다.

알리시고, 불순종에 대한 진노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꿉니다. 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연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 주며, 학문과 인문학과 일상에 필요한 지식을 줍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장르와 문체와 시각으로 보여 줍니다.

1. 질문은 '말씀하셨나'가 아니라 '무엇을'
2. 자연계시: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 진노를 알림
3. 사람은 진리를 막고 거짓으로 바꿈
4. 구원받은 이에게 자연은 학문과 생활의 복
5. 성경은 진노를 피할 길, 복음을 언약 역사로 줌

> **로마서 1:18**
> 사람이 자연계시의 진리를 막는다는 근거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로마서 1:25**
>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근거
>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 **창세기 1:28**
> 땅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을 창조에서 배움
>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31

성경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됨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2. 다양성은 모순인가 — 언약이 보여 주는 통일성 (서론)

성경이 여러 장르와 시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두고, 어떤 독자들은 모순과 불일치의 증거로 봅니다. 프레임은 반대로 성경의 '언약 내용'을 보면 66권의 근본적 통일성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66권은 우연히 한데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에게 주신 책입니다. 다만 프레임은 이 체계성이 비평가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 준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연보다 목적을, 불일치보다 조화를 보게 하는 다른 시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오래전부터 언약을 통일성의 열쇠로 써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두 언약을 구분합니다. 행위언약은 타락 전,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영생의 복(생명나무가 그 상징)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은혜언약은 타락 후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만 받는 구속의 약속입니다. 은혜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모두 아우르고, 새 언약 이전의 언약들은 새 언약을 미리 보여 주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율법서는 하나님의 기대, 역사서는 사람의 실제 반응, 시편은 언약 백성의 찬양과 탄식과 질문, 지혜서는 삶의 문제에 언약법을 적용한 것, 선지서는 언약을 어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새 언약의 역사이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를 신자와 세계 역사에 적용합니다.

2. 체계성이 모든 비평 문제를 풀진 않음
3. 개혁파 전통: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4. 성경 =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응답 이야기
5. 장르마다 언약 안에서 맡은 역할이 있음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개혁파 언약 전통을 소개하는 단락

📜 3. 클라인의 종주권 조약 모델과 십계명 (서론)

프레임은 17장에서 소개한 메러디스 클라인의 분석으로 돌아갑니다. 종주권 조약은 고대의 큰 왕(종주)이 작은 나라 왕(봉신, 섬기는 쪽)과 맺은 조약입니다. 히타이트 조약에는 비교적 정해진 양식이 있었습니다. A 큰 왕의 이름, B 지난 은혜를 말하는 역사 서문, C 법(1. 절대 충성인 사랑, 2. 구체 규정), D 복과 저주, E 시행 규정입니다. 클라인은 이 양식을 십계명에서 찾고,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약 문서로 봅니다. A: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조약의 저자가 왕이고 조항은 왕의 뜻임을 밝힙니다. B: 애굽에서 건지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 줍니다. C: 첫 계명은 사실 사랑의 명령입니다. 당시 언약 용어에서 '사랑'은 절대 충성을 뜻했고, 나머지 규정은 그 충성을 구체화합니다. D: 십계명에는 복과 저주가 둘째·셋째 계명(저주)과 다섯째 계명(복) 안에 섞여 있고, 신명기 27–28장에서는 따로 나옵니다. 언약 안에서 사람의 자리는 기록된 문서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 사본을 성소에 두고, 정기적으로 공개 낭독하고, 왕위 계승을 정합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오류 있는 증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에 맞서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증거'입니다. 클라인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정경의 씨앗으로 봅니다.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책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역사서, 시편, 지혜서, 선지서가 차례로 더해졌고, 신약은 새 언약을 위한 새롭고 별도의 정경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임은 이 모델이 성경의 권위, 불오성(성경은 우리를 속이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무오성(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것) 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 저자이시니, 봉신인 우리는 성경의 흠을 잡을 권리가 없고 모든 생각과 삶에서

1. 조약 양식: 이름·역사·법·복과 저주·시행
2. 십계명과 신명기가 이 양식을 따름
3. 첫 계명 = 사랑, 곧 절대 충성의 명령
4. 언약 문서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증거
5. 두 돌판은 정경의 씨앗(클라인)

출애굽기 20:1-17

조약 양식이 드러나는 십계명 본문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출애굽기 20:2

A 왕의 이름, B 구원의 역사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4:12; 31:18; 32:15; 34:1, 27, 32; 신명기 4:13; 9:10; 10:2-4

하나님이 십계명의 저자이심

출애굽기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애굽기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출애굽기 3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출애굽기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4: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신명기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신명기 9:10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10:2-4 2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3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출애굽기 20:3

C 절대 충성(사랑)의 명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신명기 27-28장

D 복과 저주가 따로 나오는 곳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9-13

E 정기적인 공개 낭독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31:1-8

E 지도자 계승 규정

1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4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

출애굽기 31:18; 32:16

하나님의 손수 쓰신 돌판, 절경의 비유

출애굽기 31:18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2: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 24:25

언약 문서에 기록이 더해짐(기록 장면은 24:26)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출애굽기 34:1과 34:27-28

“내가 쓰리라”와 “너는 기록하라”, 사람의 참여

📜 4. 다섯 유형의 계시 ① —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의 행위 (서론)

프레임은 클라인의 분석이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쓸모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클라인이 옳다고 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스스로 따져 보라고 합니다. 조약은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지닌 문서입니다. 목적은 하나, 곧 왕의 이름으로 봉신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다섯 항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항이 성경에 나오는 다섯 유형의 계시가 됩니다. 첫째는 이름의 계시입니다. 좁게 보면 야훼, 엘로힘, 아돈, 테오스 같은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으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와 '야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엘 샤다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가리키듯,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려고 능력의 일을 행하십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프레임은 야훼라는 이름에 세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 기준을 정하시는 최종 권위, 백성과 묶여 함께하시는 임재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자기계시 속의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은혜의 메시지, 곧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보여 주며, 구속사뿐 아니라 창조와 섭리도 담고 있습니다.

1. 조약 다섯 항 = 성경의 다섯 계시 유형
2. 엘 샤다이·야훼: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
3. 야훼 = 다스림·권위·함께하심
4. 넓은 뜻의 이름 ≒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 자신
5. 능력의 행위: 구원과 심판, 정점은 부활

> **창세기 17:1**
> 아브라함 언약을 여는 이름 '엘 샤다이'
>
>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출애굽기 3:14; 3:15; 6:1-3**
> '스스로 있는 자'·야훼, 새 계시 시대
>
>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 **출애굽기 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 **출애굽기 6:1-3** [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능력의 행위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심

출애굽기 14: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열왕기상 8: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시편 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83: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9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사야 43: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사야 52: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예레미야 16: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모스 5:8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일서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6: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수아 7:9; 에스겔 20:9

넓은 뜻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여호수아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에스겔 20:9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출애굽기 33:19; 34:5; 시편 7:17; 9:10; 18:49; 68:4; 74:18; 86:12; 92:1; 이사야 25:1; 26:8; 56:6; 스가랴 14:9; 말라기 3:16

이름과 하나님 자신은 하나

출애굽기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시편 7: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18: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74: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편 86: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편 92:1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이사야 25: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6:8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스가랴 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말라기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창세기 6–9장

홍수 심판, 심판하시는 행위의 시작

시편 104편; 136:4, 25; 145:4-6, 12

창조와 섭리도 하나님의 행위

시편 104장 [1]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2]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3]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6]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

시편 136: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5:4-6 [4]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 **시편 145:12**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 5. 다섯 유형의 계시 ② — 율법, 복과 저주, 제도 (서론)

셋째는 율법의 계시입니다. 토라는 옛 언약의 중심이고, 역사서·시가서·지혜서·선지서 모두 백성을 순종으로 부릅니다. 의인은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시도를 물리치셨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강조합니다. 넷째는 복과 저주(제재)의 계시입니다. 언약은 양날입니다. 신실한 자는 복을, 신실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를 믿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포로로 그들을 다루시면서 신실한 남은 자를 지키셨습니다. 결국 완전히 신실한 남은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임이 드러나고, 그분이 택하신 백성의 저주를 지십니다. 새 언약 아래에도 교회에 붙어 있다가 참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받고도 그리스도를 거역했기에 더 무거운 저주를 받습니다. 다섯째는 제도의 계시입니다. 문서는 언약궤 곁에 두어 공개 낭독했고, 하나님은 선지자·제사장·왕을 세워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새 언약에서 예수님이 이 직분들을 완성하셨지만, 교회를 굳게 세우시려고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 진리를 전했으며, 장로와 집사를 세웠습니다.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원래의 언약 문서에서 자라났다는 클라인의 주장을 의심하더라도, 다섯 요소가 성경 계시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통일성을 보여 주는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편만성, 상호보완성, 관점적 관계입니다.

1. 율법: 옛 언약의 중심, 예수님도 계명을 주심
2. 복과 저주: 언약은 양날, 예수님이 저주를 지심
3. 교회 안의 배교자는 더 무거운 저주
4. 제도: 문서 보관·낭독·직분·사도·장로와 집사

시편 1:2

의인은 토라를 날마다 묵상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7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56:4, 10; 119:161-162

찬양받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161-162 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요한복음 14:15, 21, 23; 15:7, 10, 14; 17:6, 17; 디모데전서 6:3; 요한일서 2:3-5; 3:22; 5:2; 요한이서 1:6; 요한계시록 12:17; 14:12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번역본의 '마'는 '요'의 오기)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6: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2:3-5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이서 1: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1:4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의 저주를 지심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에베소서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6:4-6; 10:26-31

교회 안 배교자에게 내리는 무거운 저주

히브리서 6:4-6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26-31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5:26; 16:13

성령이 사도들에게 기억과 새 진리를 주심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6:1-6; 디모데전서 3:1-7

사도들이 집사와 장로를 세움

사도행전 6:1-6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디모데전서 3:1-7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

📜 6. 언약 요소의 편만함 (원문 소제목 1)

첫 번째 근거는 편만함, 곧 다섯 요소가 성경 전체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본에 '세 가지'로 나오지만 '다섯 가지'의 오기입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 모두에서 같은 양식이 보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곳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에는 하나님의 이름(A)이나 능력의 행위(B)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근본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여호와께 대한 언약적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잠언은 언약 관계를 말로 강조하지 않을 뿐 전제하고 있으며, 그 가르침은 언약법(C)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맺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D)는 지혜서에 잘 드러나 있고, 지혜서 자체가 언약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구조(E)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자와 문체와 관심사가 달라도 강한 언약 의식이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습니다.

1. 다섯 요소는 신구약 모든 부분에 나타남
2. 가장 어려운 사례는 지혜서
3. 잠언: 여호와 경외 = 언약적 신실함
4. 전도서 결론도 경외와 계명
5. 지혜서도 대대로 전하는 구조(E)의 일부

> **잠언 1:7; 9:10; 시편 111:10**
>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 언약 전제(번역본의 '시 121:1'은 내용상 맞지 않아 오기로 보임, 확인 필요)
>
>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전도서 12:13-14

경외와 계명 준수가 사람의 본분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신명기 4:6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잠언 1:8

부모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가르침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 7. 언약 주제의 상호보완성 (원문 소제목 2)

요소들이 어디에나 있어도 서로 어긋난다면 통일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묻습니다. 다섯 요소는 서로 보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구원과 신자의 삶에 대해 서로 다른 그림을 주는가? 그의 답은 언약 모델 안에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A)은 능력을 행하시고(B), 법을 세우시고(C), 복과 저주를

필요하고, 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시행할 제도가 없으면 사람은 실제로 법 아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일관성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에 서로 맞지 않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일부를 골라 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근본적인 주제를 골랐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을 중심에 둘지에 대해 서로 크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학', '위기의 신학', '만남의 신학', '역사·사랑·희망·존재·과정의 신학'처럼 수많은 신학이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열 개의 절(번역본 3–12절)은 이런 대립 구도를 하나씩 다룬 예시입니다.

1. 편만해도 서로 어긋나면 통일성이 아님
2. 다섯 요소는 서로를 보강함
3. 법에는 제재가, 제재에는 제도가 필요
4. 자유주의는 성경을 갈라 일부만 고름
5. 결과: 서로 다른 수많은 '○○신학'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앞서 본 조약 구조 자체가 근거

📜 8. 인격과 명제 (원문 소제목 3)

마틴 부버와 에밀 브루너의 인격주의는 인격적 계시와 명제적 계시를 날카롭게 대립시킵니다. 명제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처럼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으로 된 진술입니다. 존 베일리는 신약에서 계시된 것은 정보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도 하나님이 성경으로 자신을 인격으로 드러내신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느냐입니다. 베일리는 둘이 배타적이라고 가정할 뿐 근거를 대지 않고, 브루너가 내놓은 근거도 프레임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다름없는 이름을 알리시고, 지난 복과 앞으로의 복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전하시며, 이스라엘을 '너'라고 한 사람처럼 부르시고, 친히 개입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언약은 명제적입니다. 말과 문장으로 된 문서이고, 백성의 법적 헌장이며, 대대로 보존하고 전해야 하고, 이름·행위·뜻·제재·제도에 관한 정보를

계시'를 방패 삼아 성경의 명제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프레임은 이것을 사람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일로 봅니다.

1. 인격주의: 계시는 정보가 아닌 하나님 자신
2. 프레임: 인격 계시는 맞지만 둘 중 택일은 아님
3. 언약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명제적
4. 대립을 증명할 책임은 현대 신학자에게
5. 명제를 버리는 것은 생각의 반역

> **신명기 6:4**
> 언약 말씀은 대대로 전해야 할 문장
>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유다서 1:3**
> 단번에 주신 믿음의 내용을 지킴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 **고린도후서 10:5**
>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함
>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9. 행위와 말씀 (원문 소제목 4)

한때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사건(행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주장이 유행했습니다. 칼 바르트와 브루너가 이런 대조를 했고(프레임은 각주에서

않습니다.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는 하나님이 '신앙의 눈으로 해석된 사건' 속에 계시하신다고 하여 조금 더 일관됐지만, 여전히 명제 대신 사건을 택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근본주의를 전혀 지지하지 않은 제임스 바가 라이트를 반박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행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는 현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싶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 그런 생각이 없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약 모델에서 행위와 말씀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문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은 라이트의 생각처럼 자기 경험을 해석하려는 사람의 헛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행위를 말씀으로 풀어 주실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 현대 신학: 계시는 말이 아니라 사건
2. 라이트: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사건
3. 제임스 바: 성경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있음
4. 언약 안에서 행위와 말씀은 함께 있음
5. 사건의 해석도 하나님 자신의 해석

> **베드로후서 1:20**
> 성경의 해석은 사람의 사사로운 풀이가 아님
>
>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 10. 은혜와 율법 (원문 소제목 5)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기독교 역사 내내 논쟁거리였습니다. 각주에 따르면 2세기 마르시온 논쟁에서도 핵심 요소였습니다. 신약의 몇몇 부정적 표현 때문에 둘을 맞세우고, 신자의 삶에서 율법의 긍정적 역할마저 지우려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프레임은 현대 철학자와 작가들이 표현한 '절대 자율', 곧 누구의 법도 받지 않으려는 갈망이 이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수님을

개혁파는 루터파나 세대주의 일부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율법 대 은혜 구도를 피해 왔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첫날부터 율법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사실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모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B항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율법(C)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지만 믿는 순간부터 순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순종은 언약적 신실함의 시험대이고, 더 많은 은혜와 복(D)을 가져옵니다. 은혜와 율법이 원수가 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할 때뿐입니다. 나아가 은혜의 메시지(B)는 하나님의 이름(A)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고, 그분의 구원을 믿는 것은 곧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율법 대 은혜 대립은 오랜 경향
2. 개혁파: 은혜로 구원, 첫날부터 순종
3. 언약: 은혜(B)가 먼저, 율법(C)도 처음부터
4. 원수가 되는 건 행위로 구원받으려 할 때뿐
5. 구원을 믿음 = 그분을 주로 고백함

> **야고보서 2:14-26**
>
>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 없이 혼자 있지 않음
>
>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 **신명기 7:7; 4:37; 9:4-6; 10:15**
>
> 이스라엘 선택은 자격 아닌 사랑 때문

적으니라

신명기 4:37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명기 9:4-6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10: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6:65

구원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21-24

믿는 자는 처음부터 계명을 지킴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나 2:9

구원은 여호와께 속함, 주권과 구원이 하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로마서 10:9-10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하나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구원하는 은혜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 11. 사랑과 율법 (원문 소제목 6)

현대 신학에서 사랑과 율법의 대립은 적어도 슐라이어마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에는 브루너와 조셉 플레처(『상황 윤리』) 등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없이 사랑만으로 윤리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첫째 표지로 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의 명령은 율법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꼽으신 큰 두 계명도 모세 율법에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사랑과 율법이 전혀 다르므로 언젠가는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너무 쉽게 가정합니다. 프레임은 이 가정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과 율법이 정확히 같은 윤리를 명령하는 세상을 지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모델에서 사랑의 명령은 첫 조항(C1)이고, 보통 '율법'이라 부르는 구체 규정(C2)이

충성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부 규정은 골라도 되고 안 골라도 되는 다른 윤리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풀어 준 설명입니다.

1. 사랑의 윤리론: 법 없이 사랑만
2. 사랑 명령 자체가 율법의 일부
3.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예수님)
4. 사랑과 율법이 충돌한다는 건 무신론적 가정
5. 계명은 사랑의 구체적 설명

> **요한복음 13:35**
> 사랑은 제자의 첫째 표지
>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마태복음 22:37-40**
> 큰 두 계명은 율법에서 인용됨
>
>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신명기 6:5; 레위기 19:18**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출처
>
> 신명기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 레위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요한복음 14:15, 21, 23; 15:7, 10, 14; 요한일서 2:3-6; 5:2; 요한이서 1:6**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2:3-6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이서 1: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최근 성경의 '목적'과 그것이 신뢰성·무오성·충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각주에 따르면 벌카워, 비글, 로저스와 맥킴의 책이 여기에 속합니다. 충족성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모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목적이 구속의 메시지이므로 과학·역사·철학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고, 역사 세부에 오류가 있어도 구속 메시지의 신뢰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교는 오직 구속사만 다뤄야 하고 윤리나 변증은 비켜나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연결됩니다. 프레임은 언약의 중심이 구속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역사 서문(B)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선포한다는 것은 구속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전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감사의 순종(C),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D),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구조(E)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삶 전체에 미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명령은 지적 작업, 역사, 과학, 철학까지 덮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구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A)이고, 그 주권은 모든 것에 미칩니다.
성경에는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 거룩한 성, 거룩한 땅, 보좌와 발등상인 하늘과 땅 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는 뜻의 '세속'은 없습니다. 계시가 '사건'이냐 '영원한 진리'냐는 질문에도 비슷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지만 그 적용은 역사 속 우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법의 구체적 적용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1. 목적론: 성경은 구속만, 세부 오류는 무관
2. 언약 선포 = 은혜 + 의무 전체
3. 사랑의 명령은 삶 전체를 덮음
4. 구속보다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A)
5. 거룩의 등급은 있어도 '세속'은 없다

> **신명기 6:4**
>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전부의 충성
>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 **로마서 14: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린도전서 10:31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골로새서 3:17, 24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듯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 13. 심판과 축복 (원문 소제목 8)

19세기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깎아내렸습니다. 바르트와 브루너는 심판을 다시 신학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바이스와 슈바이처 같은 철저 종말론 쪽, 최근의 희망신학과 해방신학도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되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심판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거나 은혜가 완전히(또는 대부분) 이겨 버린 일로 봅니다. 프레임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 모두 품는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가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언약 구조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느 쪽도 깎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은혜와 보응이 어떻게 함께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둘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2. 회복한 신학도 상징이나 '극복된 것'으로 봄
3. 지옥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러움
4. 공의와 복, 둘 다 깎지 말아야
5.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앞의 D항(복과 저주) 논의가 근거

📜 14.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 (원문 소제목 9)

슐라이어마허 이후 대부분의 신학자는 사람의 반응 없이는 계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진짜 소통이고, 그 반응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가 명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계시를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보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이 여러 뜻으로 쓰인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사람의 반응과 뗄 수 없는 계시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이 깨닫게 되는 뜻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8의 계시는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주어져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을 가리키는 대표 용어는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기록된 문서에도 쓰이고 내적 조명을 뜻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적 조명은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법', '율례', '증거' 같은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이런 혼란이 언약 모델을 모르거나 무시한 데서 생긴다고 봅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은 문서의 저자이시고(A) 역사·법·제재·규정을 정하십니다. 언약은 봉신의 반응을 요구하고(D), 그 반응에 따라 저주나 복이 따릅니다. 비준 때 봉신은 조건에 동의하며 맹세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소통이라는 특별한 계시도 받습니다. 그러니 언약 안에는 한 종류 이상의 계시가 있습니다. 공표된 문서는 읽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내적 조명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1. 현대 신학: 반응 없으면 계시도 없음
2. 반박: '계시'는 성경에서 여러 뜻으로 쓰임

4. 대표 용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 문서에도 씀

5. 공적 문서와 내적 조명을 구분해야

마태복음 11:27; 갈라디아서 1:16; 에베소서 1:17; 빌립보서 3:15

개인적 깨달음으로서의 계시, 반응과 뗄 수 없음

마태복음 11: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1: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빌립보서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로마서 1:18

불신자에게도 주어져 핑계 못 하게 하는 계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신명기 27:12–28:68

언약 비준 때 백성이 동의하며 응답함

12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13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14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6 그의

> 할지니라 [17]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 15. 역사와 종말 (원문 소제목 10)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적으로 종말론적이었다고 본 슈바이처와 바이스 이후,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역사와 종말의 관계를 고민했습니다. 신앙은 이미 단번에 일어난 과거 사건을 향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향하는가? 최근에는 몰트만의 희망신학,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 판넨베르크의 신헤겔주의 신학 같은 '미래 지향' 신학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불트만은 복음을 일종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음'으로 제시했습니다. 프레임은 언약 구조에 과거와 미래 사이의 긴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B)은 언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언약 백성은 늘 지난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봅니다. 동시에 언약에는 현재(C, 지금 어떻게 살지)와 미래(D, E, 앞으로 임할 제재와 계속될 제도)의 초점도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와 부딪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의 토대가 됩니다. 또 언약의 미래는 불트만의 '열린 미래'나 몰트만·판넨베르크의 막연한 미래처럼 내용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를 남겨 두시면서도 무엇이 일어날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미래를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번역본의 마지막 문장은 다소 끊겨 있어 문맥으로 읽었습니다).

1. 질문: 신앙은 과거를 향하나, 미래를 향하나
2. 미래 지향 신학의 유행
3. 언약: 과거(B)·현재(C)·미래(D, E)가 함께
4.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토대
5. 하나님은 미래의 내용을 말씀하심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조약 구조의 시간 배열이 근거

프레임은 언약 모델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먼저 인정합니다. 주권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새 통찰을 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고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특히 과정신학 전통에는 할 말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은 하나님도 세상과 함께 변해 간다고 보는 현대 신학입니다. 언약 모델은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둘 다 크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주이심을 밝히시고, 언약의 도덕법을 혼자 세우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복과 저주(D)는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응하려고 새 계획을 짤 필요가 없으십니다.

1. 언약 모델은 만능이 아님
2. 과정신학: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있다
3. 언약은 주권과 책임을 함께 강조
4. 제재는 반응에 따르나 계획은 완전함
5. 하나님은 '플랜 B'가 필요 없으심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앞의 A·D항과 14번 절 논의가 근거

📜 17. 자연과 성경 (원문 소제목 12)

많은 신학이 자연과 성경을 서로 부딪칠 수 있는 두 개의 계시 출처로 봅니다. 프레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언약 문서, 곧 성경이 말한 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은 기록된 언약을 확인해 줄 뿐 결코 반박하지 않습니다. 칼뱅의 비유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만 자연을 바로 봅니다. 그래서 언약은 최고의 증인인 언약 문서와 함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프레임은 이 열 가지 예를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성경 안에 불일치가 있다고 먼저 가정하고 마음에 드는 요소만 골라 쓰는 신학은 불필요합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이라는 장르의

1. 자연과 성경은 충돌하는 두 출처가 아님
2. 자연은 성경대로 움직이고 성경을 확인함
3. 성경의 '안경'으로 자연을 봄(칼뱅)
4. 하늘과 땅이 언약 문서와 함께 증인
5. 취사선택은 성경 구조를 어기는 일

> **신명기 31:14-29**
> 언약 문서 자체가 최고의 증인
>
>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16 또 여호와께서
>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 18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

> **신명기 4:26; 30:19; 31:28; 32:1**
> 하늘과 땅을 언약의 증인으로 부름
>
> **신명기 4:26**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 것이니라
>
> **신명기 30: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택하고

신명기 31: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신명기 32: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8:19-22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 18. 관점적 계시 (원문 소제목 13)

통일성을 보여 주는 세 번째 길은 요소들이 서로 '관점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관점적이라는 말은 같은 전체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요소별로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름(A)은 몇몇 구절, 역사(B)는 역사서와 복음서(이미 A와 겹칩니다), 율법(C)은 토라와 산상수훈, 제재(D)는 시편·잠언·예언서·묵시문학의 일부, 집행(E)은 모세오경·마태복음 18장·목회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성경 전체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이름의 계시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온전한 역사에는 그들이 받은 율법과 그들의 생각을 빚은 시와 지혜와 예언이 다 들어갑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구속사의 어디쯤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요소는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모든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소들이 같은 뜻은 아닙니다. 역사는 율법과 동의어가 아니지만,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생깁니다. 같은 원리로 '명제적 진리'도 성경을 보는 한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질문, 명령, 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제적 메시지를 알려면 그것들까지 다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명제이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뜻에서 명령이고, 답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질문이며, 우리 깊은 자아를 건드린다는 뜻에서 시입니다.

1. 요소별로 성경을 나눌 수는 있음
2. 그러나 이름을 알려면 성경 전체가 필요
3. 각 요소는 성경 전체를 보는 창
4. 같은 뜻은 아니지만 서로를 품음
5. 성경 전체가 명제·명령·질문·시

> **출애굽기 3:14; 6:1; 33:19; 34:6; 이사야 40:25; 41:1-4; 말라기 3:6; 요한복음 8:58**
> 이름의 계시(A)가 두드러진 구절
>
>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 **출애굽기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
> **출애굽기 33: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
> **출애굽기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 **이사야 40:25**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41:1-4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3]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말라기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7장

율법(C) 부분의 예, 산상수훈

마태복음 18장

집행(E) 부분의 예, 교회의 권징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

“언약의 각 요소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 19. 결론 (원문 소제목 14)

프레임은 이 모든 방식으로 언약 모델이 성경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게 해 준다고 정리합니다. 저자와 책마다 차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 통일성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계시를 주셨고, 말씀의 여러 적용 가운데서도 말씀의 하나 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아이에게도 충분히 전달되면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게도 도전이 될 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믿을 만하고 분명하며 서로 맞는 말을 들려줍니다.

1. 차이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의 통일체
2. 근원은 삼위일체의 '다양성 속 통일성'
3. 말씀은 아이에게 닿고 학자에게 깊음
4. 믿을 만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말씀

> **(직접 인용 구절 없음)**
> 장 전체 논증의 정리

⚖️ 오해와 반론

📖 용어

일반계시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약속의 관계로, 하나님이 조건을 정하시고 사람은 응답합니다.

행위언약·은혜언약

타락 전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언약, 그리고 타락 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언약.

종주권 조약
고대 근동에서 큰 왕(종주)이 작은 나라(봉신)와 맺은 조약으로, 정해진 다섯 부분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성경 책들의 목록. 개신교는 66권입니다.

불오성·무오성
성경이 우리를 속이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것.

명제계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과 진술의 형태로 주어지는 계시.

구속사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편만성
어떤 요소가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성경 전체에 두루 퍼져 있음.

내적 조명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일.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고대 조약의 다섯 요소는 성경 어디에나 있고(편만성), 서로 맞물리며(상호보완성), 각각이 성경 전체를 보는 창입니다(관점적 관계).
- 인격과 명제, 행위와 말씀, 은혜와 율법, 사랑과 율법 등 현대 신학의 대립 구도는 언약 안에서 풀립니다.
- 그러므로 성경을 갈라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고르는 신학은 성경의 구조 자체를 어깁니다.
-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아이에게 닿고 학자에게 깊습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